출판인과 출판자

김성재 | 일지사 대표

김성재 사장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 붙이는 한자로는 '人', '者', '家' 따위가 있다. '者'와 '家'가 붙은 '교육자·교육가'는 같은 뜻으로 함께 쓰이는 말이지만, '人'과 '家'가 붙으면 '저술인·저술가'와 같이 같은 뜻으로 함께 쓰이는 말도 있고, '종교인·종교가'나 '정치인·정치가'와 같이 다소 뜻을 달리해 쓰이는 말도 있다. 또, '人'과 '者'가 붙는 '출판인·출판자'와 '편집인·편집자'는 대체로 같은 뜻으로 쓰이나 조금 뜻을 달리해 쓰인다.

'출판자'라고 하면 자기 계산하에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사람, 곧 출판물을 기획·발행해 그 책임을 지는 발행자만을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출판인'이라고 하면 출판자 말고도 편집자도 아울러서 일컫는 수가 있다. 하지만, 더 엄밀히는 경영자로서의 출판자 중 적격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남들이 높여서 말할 때 주로 쓰인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는 출판자 내지 출판업자라고 하지 출판인이라고는 잘 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 스스로가 '종교가'니 '법조인'이니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 '출판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기는 일본에서 1869년에 제정한 출판조례(出版條例)에서였다. 이해는 고종 6년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서사(書肆: '書房'이라고도 하던 지금의 서점)에서 방각본(坊刻本)이 한해에 겨우 한두 가지 나오던 시기여서 우리나라에서 출판인이라는 말을 쓰기 훨씬 이전 시대였다. 한데, 출판조례는 일본에서 출판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출판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률의 용어에서 비롯된 '출판인'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좋은 뜻으로 쓰이고 있으니 묘한 느낌이 든다.

'출판인'이라는 말은 1887년에 개정한 출판조례부터 '발행자'로 바뀌었는데, 1893년에 제정된 출판법이라는 악법에서도 '출판인' 대신 '발행자'라는 말을 썼다. 이 출판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1945년 9월 27일에 악명 높던 신문지법과 함께 그 효력이 정지되고 몇 년 후 폐지됐다. 그 뒤로도 '발행자'라는 말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서적 간기면(刊記面: '판권면'이라 말하는 것은 잘못)에서 계속 쓰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간기면에서는 더 부드러운 순 우리말인 '펴낸이'이라는 말도 아울러 쓰고 있다.

일본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을 규제하기 위해 1909년에 제정한 신문지법(新聞紙法)에 처음으로 등장한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따위 말은 우리나라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그대로 계승되어 내려와 게재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지 간기면에 아직까지도 이를 써야 한다. 서적을 펴내는 이와 잡지를 펴내는 이의 직함이 하나는 '발행자'요 다른 하나는 '발행인'이라는 별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마치 '인(人)' 자가 붙은 '발행인'이 '자(者)' 자가 붙은 '발행자'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도 있다. 이는 '편집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편집자 중 책임을 지는 이를 법률로 정해 이르는 명칭인 '편집인'으로 불러주는 걸 그들이 더 선호하거나 스스로 그렇게 부른다면 좀 우스운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일들은 출판자나 편집자를 비롯한 언중이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덜 써 왔을 뿐 아니라 사전들의 풀이도 잘못돼 있기 때문에 말미암은 일이 아닌가 싶다. ●

영국 경험론 연구

이재영 지음/288면/9,000원

대륙 합리론과 함께 근세철학의 새 장을 연 영국 경험론에 대한 연구서. 로크, 버클리, 흄, 리드의 추상 관념 이론을 현미경 삼아 영국 경험론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준다. 우주의 중심을 인간으로 끌어내린 경험론의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비판 정신 속에서 근세철학의 세계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치론의 역사적 조명

W.H. 베르크마이스터 지음/최병환 옮김/640면/26,000원(양장)

윤리학의 분과 학문인 가치론의 주요 내용과 역사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이다. 브렌타노·마이농·에렌펠스·크라이비히 등 독일과 오스트리아 철학자들의 가치론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가를 명확하고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비판적 사회과학과 철학적 인간학

J. 하버마스 외 지음/이현아 편역/272면/8,500원

철학적 인간학에 관한 하버마스의 글과 하버마스의 비판 사회 이론을 그 인간학적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한 글들을 모았다. 이 책을 통해 하버마스의 비판 사회 이론이 왜 인간학적 기반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그 인간학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천리안 phil6161